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의 실학정신과 한국사상사*

張寅性**

I. 머리말: 실학과 개화, 한국사상사

II. 실학과 개항

III. 허와 실

IV. 예의와 시세

V. 변통과 보수

VI. 맺음말: 실학정신의 리얼리즘과
보수주의

• 국문초록

근대한국 사상사 연구는 실증적 분석이 많아졌지만, 변혁적 개화사상을 위주로 이념적으로 사상사 계보를 구성하는 관점은 여전하다. 급진개화파를 중심으로 근대주의 관점에서 한국사상사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는 온건개화파의 사상과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변법적 개화사상은 갑오개혁 때까지는 주류 사상이 아니었다. 급진적 개화사상을 위주로 근대한국 사상사를 구성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온건 개화사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고에서는 서세동점과 개항의 콘텍스트에서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의 실학정신이 발현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들은 중화체제가 주권국가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분석 텍스트로는 『臞齋集』(1911), 『雲養集』(1914), 장인성 역저, 『서유견문』(연암서가, 2017)을 사용하였고, 김채식·이성민 역, 『환재집』 전4권(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2017); 기태완 외 역, 『운양집』 전8권(혜안, 2013~2014)을 참조하였다. 인용시 번역본 『환재집』과 『운양집』의 출처를 병기하였다.

서 생겨난 허상과 실상의 겹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근대적 현상과 유학적 언어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실학정신을 보였다. 질서변동의 현실을 파악하는 리얼리즘과 변통의 사유를 보이는 한편, 체제 보전의 보수주의 정신을 드러냈다. 유학적 실학정신의 리얼리즘과 보수주의는 서세동점과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시대적 조건에 반응한 것이었다.

주제어 :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 실학정신, 개화사상, 리얼리즘, 보수주의

I. 머리말: 실학과 개화, 한국사상사

근대한국 사상사는 근대적 주체의 근대사상 수용 양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 급진개화파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다. 박규수를 급진개화파를 길러낸 ‘스승’이자 박지원과 급진개화파를 잇는 ‘결절’로 자리매김하고 박지원-박규수-김옥균/박영효의 사승 관계의 계보를 상정함으로써 실학사상에서 개화사상으로의 내재적 발전을 정당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혁명적인 민중사상(동학)의 근대적 전개에 주목하는 사상사 서술도 면면히 이어졌다. 근래 실증 분석이 늘면서 이념적 해석이 멀어지고 유학사상의 근대적 변용에 주목하는 연구도 늘었다. 그럼에도 변혁적 개화사상 중심의 근대사상사 서술이 극복된 건 아니다. 개혁성과 보수성을 공유한 김윤식, 어윤중, 유길준 등 온건개화파의 사상은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개항기 한국에서 변혁적 개화사상은 주류가 아니었다. 소수의 급진개화파 이외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유학자들은 개화사상을 부정하였고, 개명적인 온건파 관료도 변법적 개화사상에 비판적이었다. 개항기의 개방개혁 구상은 실학정신의 표현이었다. 개항기 유교사회에서 時務의 개혁사상은 개항 상황에 대응하는 유학적 실학정신의 표출이었다. 이 글에서는 개혁적 사대부 관료였던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의 사상을 통해 서세동점기/개항기에 ‘실학정신’이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실학사상’과 함께 ‘실학정신’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실학’은 철학적, 사상적 원리보다는 현실 상황을 마주하는 태도나 정신에서 의미를 갖는다. ‘실학정신’은 이러한 태도나 정신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은 서세동점과 개항의 콘텍스트(현실)에 대응하는 실학정신을 드러낸 시무가였다. 통상 박규수와 김옥균의 사상적 연결성을 강조하지만, 사승 관계로나 사상적으로나 김윤식, 유길준이 박규수와 더 가까웠다.¹⁾ 세 사람의 사상연쇄는 서세동점과 개항의 ‘콘텍스트’와 그러한 콘텍스트에 대응하는 시무가의 ‘실학정신’에서도 생겨난 것이었다.

서세동점기/개항기는 중화질서 변동과 근대 수용으로 인해 현상(리얼리티)과 언

1) 김윤식과 유길준은 박규수의 지도를 받았다. 김윤식은 박규수의 『환재집』과 유길준의 『구당시초』를 편찬했고 유길준과 함께 갑오개혁에 참여하였다.

어(개념)가 분리되는 때였다.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은 오래된 중화체제와 새로운 주권국가체제 사이에 생겨나는 갭을 감지하고 근대적 현상과 유학적 언어 사이의 간극을 간파하는 실학정신을 보였다. 이들은 변화하는 현상을 파악하는 리얼리즘과 체제 보전의 보수주의 정신에 입각한 변통의 사유를 보였다. 한국사상사는 새로운 것의 시원과 흔적 못지 않게 오래된 것의 연속과 변용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실학정신을 밝히는 작업에서 근대주의와 변혁 이념을 내세워 이 갭이나 간극을 일거에 해소하려는 관점을 극복하고 유학적 변용의 관점에서 근대한국 사상사를 재구성할 전망을 얻을 수 있다.

II. 실학과 개항

1. 연속과 단절

조선후기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관성은 근대한국사상사 연구에서 핵심 논제였다. 양자의 연속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우세했다. 김영호는 박규수를 실학(북학파)과 개화사상을 매개하는 개화사상가로 설정함으로써 개화사상의 주체적 전개 가능성을 찾았다.²⁾ 강재언도 박규수를 ‘결절’로 상정하면서 실학의 근대지향적 측면이 근대 변혁사상인 개화사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³⁾ 이광린은 박규수가 실학을 개화사상으로 승화시켰고, 강위, 신현도 실학을 개화사상으로 연결시켰다고 주장하였다.⁴⁾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관성은 인적 맥락과 논리적 유사성에서 도출된 추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실학사상에서 근대적인 것의 맹아를 찾는들 개화사상과의 연속성이 증명되는 건 아니다. 조광은 양자의 단절을 주장하였다. 유교적 신분사회의 실학과 근대적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개화사상의 질적으로 다르면서 실학과 개화

2) 김영호,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관 문제」, 『한국사연구』 8, 한국사연구회, 1972.

3) 강재언·정창열 역,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1981.

4) 조광, 「실학과 개화사상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 경인문화사, 2010, 313~324면. 북한학계에서는 1960년대 초반에 실학과 개화사상을 연결시키는 주장들이 나왔다.

사상은 선후 관계일 뿐 인과 관계가 없고 관련성이 희박한 별개 사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기왕에 연속설이나 단절설이나 실증적이었던 건 아니다. 김명호는 박지원과 박규수의 인적 연결과 사상적 연관성을 실증함으로써 근대주의/민족주의 관점에서 실학과 개화사상을 연결짓는 추론과 억측을 타파하는 한편, 18세기 실학이 “계승”, “발전”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⁶⁾ 김명호는 박규수가 부친 박종채와 외종조 유희, 박지원의 처남 이재성의 아들인 이정리, 이정관 형제를 통해 박지원의 실학을 전수받았고, 《尙古圖會文義例》, 《居家雜服攷》의 선비론, 몽골의 풍속을 답습한 부인복과 아동 변발을 중화제도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의관 개혁론, 평양의 정전을 기자가 시행한 은나라 전제의 유제로 간주한 전제론이 박지원의 생각을 계승한 견해였음을 논증하였다.⁷⁾ 의관 개혁론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한편, 전제론에서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속을 상정하였다. 실학과 개화사상을 별개로 봐야 한다면에서도 내심 박규수의 실학이 개화사상으로 “발전”하는 구도를 상정한 것이다. 박규수의 청문물 수용론(서학중원설)에서 동도서기론으로의 “사상적 발전경로”를 찾기도 했다. 김명호는 ‘근대’를 잣대로 실학과 개화사상을 연관지우는 관점 자체를 버리지는 않았던 것이다.⁸⁾ 이러한 관점은 논점을 달리하면서 살아남아 있다. 김충열은 조선 정치사상사/유학사의 흐름에서 파악되는 세계관의 연속과 근대사상을 태동하는 지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조선후기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다.⁹⁾

한편 인적 소원과 논리적 차이를 들어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속성을 비판하는 견해도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 조광은 김명호와 마찬가지로 인적 연결에 의거한 연속설이 추론에 불과하며, 실학과 개화사상 간의 질적 차이가 “시대적 차이”에서 기

5) 조광, 앞의 2010 논문, 303~338면.

6) 김명호, 「실학과 개화사상」, 『한국사 시민강좌』 48, 일조각, 2011, 134~135면. 김명호는 오경석을 최초의 개화사상가로 규정한 신용하 연구가 추론에 지나지 않으며, 실증적 근거로서 제시된 자료와 해석의 오류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7) 김명호, 앞의 2011 논문, 141~143면.

8) 김명호, 앞의 2011 논문, 130면; 김명호, 「실학과 개화사상의 관련양상」, 『대동문화연구』 3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9) 김충열, 「1880년대 개화파의 세계관 탐구: 실학과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21.

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박규수의 개국론이 북학파의 해외통상론을 계승했을 지언정 개화사상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유사한 사회적 조건에서 생겨난 사회 문제의 공통성보다 시대적 차이에 따른 이질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¹⁰⁾ ‘시대적 조건’은 실학과 개화사상의 논리적 유사성의 추론을 극복하고 양자의 차이를 드러내는 변수로 상정되고 있다. 중요한 논점이다.

다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봉건성의 실학과 근대성의 개화사상을 구별하는 한, 아포리아는 해소하기 어렵다. 실학과 개화사상이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의미지워졌는지를 따져야만 한다. 유길준이 허울에 치우친 ‘개화’(허상개화)를 비판하고 실사구시, 경세치용, 이용후생의 실학정신을 중시하였다는 사실, 김윤식이 갑신정변 주체의 ‘개화’ 개념을 부정하면서 ‘시무’를 강조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속과 단절을 넘어 실학정신의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실학’과 ‘개화’의 당대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실학’과 ‘개화’

서세동점기/개항기 개혁사상을 일본발 ‘개화’ 개념으로 파악하는 습관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유학적 ‘실학’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학술용어 ‘실학’은 실사구시, 경세치용, 이용후생을 지향하는 조선후기 유학의 사상적 경향을 말한다. 실학사상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의독구실지학’, ‘치용학’, ‘실학’ 등으로 부르면서 담론화했고, ‘실학’ 용어는 1950년대 남북한 학계에서 조선후기 사상계의 새로운 경향을 ‘실학사상’으로 규정하면서 자리잡았다.¹¹⁾ 조선조 유학에서 ‘실학’ 용어는 불교와 노장학을 지칭한 ‘허학’의 상대어로 사용되었고, 유학, 성리학, 경학을 의미하였다. 유학의 실제성과 실천성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실

10) 조광, 앞의 2010 논문, 330~334면.

11) 실학사상과 ‘실학’ 개념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조성을,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상사 입문』, 서문문화사, 2006; 심경호, 「실학 개념의 재정립」, 『인간 환경 미래(1)』,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08; 한영우, 「실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영우 편,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9; 조광,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 경인문화사, 2010; 이현창, 「실학의 개념과 학술사적·현재적 의의」,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2018; 정호훈,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추이와 성과」, 『한국사연구』 184, 한국사연구회, 2019.

학은 유학의 허학화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출사를 위한 과거시험과 관련된 것이기도 했다. 조선조 유학자의 실학론은 修己만 하고 治人하지 못한 자의 학문이 유의미한지를 논한 것이었다.¹²⁾

유학적 실학에 ‘실용’의 뜻만 있는 건 아니다. 강화학파 양명학자들은 ‘실학’을 일상 속에서 마음의 치우침과 기울어짐이 없는 것,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誠의 실천으로 파악하였다. 성현의 말을 빌어 군자의 허물을 꾸미는 주자학 말류를 비난하였고 功利와 好名을 비판하였다. 정제두는 ‘실심’으로 ‘실정’을 행해야 한다면 ‘실심’을 구하는 ‘심학’, 명보다 실을 추구하는 ‘實心實學’을 추구하였다. ‘실심’은 ‘실사’와 ‘실효’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마음이었다. ‘실심’은 하늘로부터 ‘실리’를 부여받은 마음이며, ‘실리’는 마음이 준거해야 할 선천적 조리였다.¹³⁾ ‘실심’과 ‘실리’의 작용을 중시하는 ‘**실심실학**’은 비록 외재의 현상(실제)과 관계지우는 방식은 달랐지만 조선 주자학에서도 강조되었다. 개항기의 성리학자는 외세의 위협에 대하여 ‘實心實學’과 ‘實理主宰’를 인륜질서를 지키는 요체로 파악하기도 했다.¹⁴⁾

이처럼 실학은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김윤경은 국가기록과 개인문집에 보이는 ‘實學’·‘實心’·‘實事’·‘實用’·‘實理’·‘實行’·‘實德’·‘實政’·‘實效’·‘實業’ 등 용례의 통계 분석을 통해 이들 용례가 특히 영정조와 고종 연간에 빈출하였고, ‘實’ 담론의 내용이 전환기를 거치면서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재조기에는 퇴율절충파나 우계학파 계열이 노론계 북벌론을 ‘허명’, ‘허위’라 비판하였다. 서학전래기에는 성호학파나 북학파가 정주학적 경학 중심의 실학이 아니라 ‘실사와 실용’을 강조하면서 ‘이용후생’은 ‘정덕’과 분리되어 쓰였다. 개항기 유학자들은 ‘실심’과 ‘실리’를 중시하였다.¹⁵⁾ 콘텍스트에 따라 유학적 실학 개념은 다양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유학적 실학 개념의 대전환은 1890년대 후반 대한제국기에 근대적 학제가 성립하면서 실학(실업) 교육이 행해지고 서양과학의 효용성과 실제적 유용성을 중시한

12) 강지은, 「조선시대 ‘실학’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보』 75, 고려사학회, 2019, 133면.

13) 박연수, 「강화 하국학파의 ‘實心實學」, 『양명학』 16, 한국양명학회, 2006.

14) 김윤경, 「조선 후기 ‘實’ 담론에 나타난 유교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철학논집』 75, 한국철학사연구회, 2022. ‘실심’에 주목하는 실학 연구로는 오가와 하루히사, 「실심실학 개념의 역사성과 보편성」,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2016.

15) 김윤경, 앞의 2022 논문.

메이지 ‘실학’ 개념이 통용되면서였다. ‘실학’은 실업학, 자연과학, 과학 등을 의미하게 된다.¹⁶⁾ 근대적 ‘실학’ 개념의 유통과 ‘개화’ 개념의 확산은 상관적이었다. 장지연이 유학의 틀 속에서 ‘開物成務’와 ‘化民成俗’의 합성어로 재해석하여 ‘개화’를 긍정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개화’는 ‘실학’과 결합하였다. 《매일신문》 논설자는 “개화라 하는 사람은 실학은 무엇인지 모르고 머리깎고 양복만 하면 다 된 줄로 아”는 “개화의 무실함”을 지적했다. 개화는 “때를 헤아려 편리하도록 하여 실상으로 힘써 백성으로 하여금 행하여 가는 것”이라면서 “참개화”(실상개화)에 유의하는 사람은 “개화실학”에 힘써야 하고, “실지실학”에 힘써 “외모개화”(허상개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¹⁷⁾ 《서유견문》(1895)의 개화론이 언론 매체를 매개로 확산되면서 유길준이 말한 ‘실상개화’가 ‘개화’와 ‘실학’이 결합된 ‘개화실학’, ‘실지실학’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1890년대 ‘개화’=‘실학’ 개념의 전회는 1880년대 개항기 ‘개화’ 개념의 재조명을 촉구한다. 강화도조약 체결을 전후해서 들어온 일본발 ‘개화’(‘문명개화’) 용어¹⁸⁾는 문명화(서구화, 근대화)를 뜻하는 말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개화파에 한정된 용어였다. 당대에는 실학적 ‘시무’가 일본발 ‘개화’보다 우세했을뿐더러 ‘개화’는 비난의 표적이었다. 유생들의 개혁상소나 고종의 교서에 사용된 ‘개화’ 개념은 서세동점과 개항의 국가위기와 질서변동에 대응하는 시무정신, 즉 유학적 실학정신의 표현이었다. 박규수의 경세관은 시무의식이 요체였다.¹⁹⁾ 김윤식이 ‘개화’를 양무론적 개혁으로 이해한 것이나 유길준이 ‘시세와 처지’에 맞는 ‘실상개화’를 주장한 것은 시무정신=실학정신의 표현이었다. 개방개혁의 ‘시세와 처지’에 대응하는 실학정신을 근대적 ‘개화’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차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16) 강지은, 앞의 2019 논문, 133면; 노관범, 「전환기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이해」, 『기억의 역전』, 소명출판, 2016, 276~303면. 대한제국기의 실학 개념에 관해서는 노관범,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사, 2018에도 상세하다.

17) 노관범, 앞의 2016 논문, 310면.

18) 김윤희, 「갑신정변 전후 ‘개화’ 개념의 내포와 표상」, 『개념과 소통』 1(2),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8; 김종학, 「‘개화’의 수용과 근대 정치변동(1876~1895)」, 『한국문화』 9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19) 다음 시구에서 엿볼 수 있다. “冷眼看時務 虛心讀古書”(『獻齋集』 卷3, 詩, 歲暮寄人, 2張; 『환재집』 1, 283면).

3. 서세동점/개항과 리얼리즘

19세기 동아시아 중화질서와 유학지식의 변동을 초래하고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의 사상적 영위를 규율했던 ‘시대적 조건’은 서세동점과 개항이었다. 서세동점은 두 차례 있었다. 서양의 과학기술과 천주교가 전래된 과학문화적 차원의 서학동점과 군사적 차원의 서력동점(서세동점)이다. 세 사람은 후자의 서세동점을 경험하였다. 베이징 함락, 병인양요, 제너럴셔먼호 사건 등 서양국가와 군사적 충돌로 개항이 초래되었고, 국가 생존과 개방개혁이 요구되는 콘텍스트가 출현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읽어내는 리얼리즘은 실학정신을 일깨웠다. 서세동점은 병학적 관심을, 개항의 상황은 외교와 서양 수용을 주장하는 개방개혁의 리얼리즘 감각을 일깨웠다. 리얼리즘은 권력 지향이나 현실 추종의 의식이 아니라 리얼리티를 읽어내는 감각을 말한다.

리얼리즘은 현실(reality)과 규범(norm)의 연관성을 뒤흔들었다. 군사적 갈등과 외교 문제에 대응하는 정치적 리얼리즘이 성장하면서 개별지향적 자주주의(현실주의)이 보편지향적 중화주의(규범주의)에서 분화하였다. 첫째, 서세동점/개항은 현실(실제)과 언어(명분)의 분리를 촉발하였다. 질서변동기에는 기존 질서를 지탱했던 명분과 변하는 실제 사이에 차질이 생겨난다. 유학적 언어는 현실 해석력이 떨어지고 새로 유입되는 근대적 언어는 현실과 괴리를 보였다. 여기서 허와 실을 판별하려는 실학정신이 나타났다. 둘째, 기존 규범에 집착하는 원리주의 사고와 변하는 시세(현상)에 주목하는 리얼리즘이 작동하였다. 전통주의자들은 새로운 실재를 부정하고 기존의 명분을 고집한 반면, 리얼리스트는 리얼리티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기존의 규범을 보전하려는 실학정신을 보였다. 셋째, 공동체 보전을 위해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무엇을 개혁하고 보수할지를 따지는 실학정신이 작동하였다. 실학정신은 시세에 주목하면서 실제와 명목 사이의, 현상과 언어 사이의 갭을 좁히려는 의식이며, 보수적 개혁(시무)을 중시하는 변통의 사유였다.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은 서세동점과 개항의 문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세가, 시무가였다. 북경함락(1860) 직후 박규수는 “승냥이와 범이 날뛰고 고래가 출몰하며, 육지와 바다에 풍진이 가득한” 서세동점을 맞아 유교의 기강이 상실되고 서방 상인들이 “사람과 하늘을 속이도록 서로 선동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²⁰⁾ 선비의 도(예)를 되찾고자 했다. 유교문명이 서양을 압도할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리얼리즘

의 정치관을 감추지 않았다. 후술하듯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천주교 대응책을 강구하였고, 서계 수리와 대일 수교를 둘러싸고 명분적 대응보다 현실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김윤식도 유교문명의 존립이 위협받는 “4천년 초유의 변국”에 처해 옛법의 변통을 말하면서도 유자로서 유학적 규범을 지키고자 했다.²¹⁾ 병인양요(1866)를 계기로 해방과 병기 제작을 주장하는 군사적 리얼리즘을 드러냈고,²²⁾ 강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는 리얼리즘에 기초한 사대의식을 보였다. 유길준은 한때 약육강식의 강권주의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조공체제와 주권국가체제가 공존하는 이중질서에서 법규범주의와 리얼리즘의 균형 속에서 자주를 찾고자 했다.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은 서세동점/개항의 콘텍스트에서 현실과 이념 사이, 실제와 허구 사이를 응시하면서 리얼리즘과 규범주의의 착종을 드러냈다. 실용성과 효용성을 중시했을 뿐 아니라 실제와 이념, 현상과 언어 사이에서 ‘실리’와 ‘실심’을 찾고자 했다. 허구와 비현실성을 추궁하는 ‘실심’의 실학정신은 질서변동과 위기적 상황을 파악하는 리얼리즘에서 배태된 것이었다.

III. 허와 실

1. ‘실사’와 ‘실용’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유학적 실학정신은 문장론에 엿보인다. 박규수는 문장에서 修辭가 아니라 실재를 읽고자 했다. “책 속에서 實事를 물을 뿐, 聲律이나 藻繪은 알 바 아니다”²³⁾라고 했다. 박규수는 화려한 수식과 요란한 표현만 있을 뿐, “온유둔후한 면모”와 “백성을 교화하는 바탕”이 없는 송명 시대의 시가를 비판하기도 했다. 詩歌의 도는 정치와 통한다고 생각해서였다.²⁴⁾ 그는 문학을 시대와 백성의

20) 『瓊齋集』 卷3, 辛酉孟春之六日集鶴樵書室…, 13張(『환재집』 1, 339면).

21) 『雲養集』 卷10, 白渠集序, 26張(『운양집』 5, 143~144면).

22) 『雲養集』 卷11, 洋擾時答某人書, 16~17張(『운양집』 5, 385~386면).

23) 『瓊齋集』 卷3, 呈徐楓石致政尙書, 10張(『환재집』 1, 320면).

24) 『瓊齋集』 卷2, 鳳韶餘響絕句 一百首 并序, 38張(『환재집』 1, 204면).

삶과 결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詩道는 시대의 성쇠에 매이고 백성들의 애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²⁵⁾ 박규수는 문장을 단지 詞章이 아니라 修己와 安民의 도를 실천하는 경세의 도, 경세치술로 생각하였다. “문장이 經術과 政理와 같은 중대한 일과 무관하다면 지을 것이 못된다”는 고염무의 생각에 감복하였다.²⁶⁾ 문장은 “아 속과 진위”를 바로잡는 것이며, “법고하되 변화시킬 줄 알고 창신하되 전아해야 한다”고 했다.²⁷⁾

이러한 생각은 畫論에도 보인다. 박규수는 회화의 기능을 성정의 도야가 아니라 실용에서 찾았다. 회화는 견문과 족적이 미치지 않아 알 수 없는 역사적 사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천하의 일을 알려주는 것으로, 학문과 정치에 효용이 크다고 보았다.²⁸⁾ 박규수는 “오직 眞景과 實事라야 實用으로 귀결되며, 그런 뒤에 畫學이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학문은 모두 실사다. 천하에 實이 없으면 어찌 학문이 있겠는가”²⁹⁾라고 했다. 회화와 학문은 ‘진경’과 ‘실사’를 다루어 경세제민에 기여하는 도구였다. ‘실사’와 ‘실용’을 중시하는 실학정신을 읽을 수 있다.

김윤식은 박규수와는 달랐다. 인성론의 차원에서 문장을 道の 산물로 보았다. “문장은 도에서 나오고 도는 문장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다.³⁰⁾ 문장을 단순한 완상품이 아니라 “성정의 발로”이자 “도덕의 소산”으로 보았다. 김윤식은 문장을 통해 성정과 도덕이 발현될 때 ‘格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당연히 ‘假借摸倣’의 작문이나 ‘牀屋塗抹’의 文飾은 부정하였다.³¹⁾ 科文에도 비판적이었다.³²⁾ 훗날 “文過之病”와 “義過之弊”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기도 했다.³³⁾

김윤식도 역사적 현실을 파악하는 것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았다. 배움은 “고금의

25) 『瓚齋集』 卷3, 渭師嘲余不喜作詩 輒以一百韻解之, 5張(『환재집』 1, 301면).

26) 『瓚齋集』 卷4, 圭齋集序, 39張(『환재집』 2, 144면).

27) 呈徐楓石致政尙書, 10張(『환재집』 1, 318면).

28) 『瓚齋集』 卷4, 錄顧亭林先生日知錄論畫跋, 24張(『환재집』 2, 93면).

29) 錄顧亭林先生日知錄論畫跋, 25張(『환재집』 2, 96면).

30) 『瓚齋集』 卷1, 瓚齋集序(金允植), 1張(『환재집』 1, 89면). 김윤식의 문장론은 장인성,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183~189면에 의거하였다.

31) 「宜田紀術評語三十四則」(1891), 『續陰晴史』(上), 국사편찬위원회, 1955, 150면.

32) 『雲養集』 卷12, 書朴琮烈文稿後, 22張(『운양집』 6, 121면).

33) 『雲養集』 卷9, 婉裁折中序(1919), 19張(『운양집』 4, 496~498면).

사변을 궁구하여 문 밖을 나서지 않고서도 천하의 사정을 아는” 것이며, “먼저 자신의 마음을 얻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에 크게 도달한” 고인의 행적을 추체험하는 행위였다.³⁴⁾ 또한 학습은 ‘古人の 문자’에서 뜻을 얻는, 성인의 도를 알기 위한 행위였다. 김윤식은 “고인의 문자”로써 그 뜻을 알아야 문장을 이해하고 고금의 일을 알게 된다고 했다.³⁵⁾ 배움의 의의를 일상성과 실용성에서 찾기도 했다. “배움의 길은 日用常行과 處事接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현실과 유리된 禪寂이나 사물과 동떨어진 空言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했다.³⁶⁾ 성인의 도도 일상의 실천에서 찾았다. 성인의 도는 “일용상행의 눈앞의 도리”이며, 성인의 말은 “平易切實하여 어리석은 남녀라도 아는 것”이어야 했다. 김윤식은 ‘明德’을 오묘한 心體가 아니라 덕과 선의 실천인 ‘行事’로 보았다. ‘明明德’은 ‘格致誠正’과 ‘修齊治平’에 요구되는 知와 行을 포괄한다고 생각하였다.³⁷⁾

박규수와 김윤식은 경서와 사서의 문장에 구현된 중화세계의 역사적 사실과 유학적 도리를 읽어내고 정치의 양태를 찾고자 했다. 문장(한문)은 단순히 옛법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의 예와 일상적 실천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박규수가 고대 중국에서 말과 글이 일치했지만 속화와 고문의 구별이 생겨난 지금의 “형세”를 읽어냈을 때, 아무리 흉내내도 요순의 “진실과 순박함”이 사라져 감동을 주지 못하는 금일적 상황을 인지했을 때,³⁸⁾ 중화세계의 문장과 예는 흔들리고 있었다.

서세동점과 개항의 콘텍스트에 들어서면 문장과 현실의 연관성은 새로운 차원을 보인다. 유길준은 글(문장)과 뜻(마음)의 연관성보다 말(언어)과 글(문자)의 관계를 생각하였다. 근대세계와 소통하는 개항의 문맥에서 문장론에 머무르지 않고 언어론을 제기하였다. 유길준은 말과 글을 사유의 표현으로 보았다. 글은 ‘情形’이나 ‘眞景’을 이해하는 수단인데, 문명 전환의 문맥에서는 말과 다른 한자어의 “난삽한 문자”

34) 『雲養集』 卷14, 八家涉筆上(1870), 30張(『운양집』 6, 504면).

35) 書林琮烈文稿後, 22張(『운양집』 6, 121면).

36) 『雲養集』 卷11, 書牘上, 書贈朴琮烈, 36張(『운양집』 5, 473면).

37) 『雲養集』 卷8, 說, 明德說, 14~15張(『운양집』 4, 296~297면). 이에 관해서는 정성희, 「근대 초기 유학자의 현실인식과 대응 논리-운양 김윤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5, 170~174면에 상세하다. 이 학문관은 훗날 신학 수용의 논리가 되고 있다(『新學六藝說』(1907), 『雲養集』 卷8).

38) 『璣齋集』 卷4, 雜著, 恭錄高麗史辛庶人傳所載洪武聖諭跋, 16張(『환재집』 2, 63면).

로는 외국의 ‘情形’, ‘情實’, ‘眞景’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고 외국인과 소통하는 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뜻이 확실한 글자와 속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한자 혼용과 속어 사용에 의한 언문일치를 통해 서양의 실체를 전하고자 했다.³⁹⁾ 同文의 세계에 한정된 박규수, 김윤식과는 언어관이 달랐다.

실용의 의미도 달라졌다. 박규수와 김윤식이 각각 경세치용과 주자학적 실학의 측면에서 생각했다면, 유길준은 이용후생의 측면이 강했다. 유길준은 만물의 원리를 연구하고 그 功用을 발명하여 “인생의 편리한 도리”를 돕는 서양학술의 실용과 효용(‘功用’, ‘功效’)에 주목하면서⁴⁰⁾ 생업과 便民, 富民과 부국에 ‘공효’를 주는 실용지를 추구하였다. 지식은 인민의 생계를 강구하고 “인세의 안락과 편리”에 기여하는 실용지식이며, 배움은 옛사람의 찌꺼기를 주워 모으는 ‘허명’의 것이 아니라 “실을 위주로 하는” 실용하는 ‘功力’이어야 했다.⁴¹⁾ 유길준은 서양체험을 통해 박규수, 김윤식과는 다른 실학정신을 계발시켰지만, 유학적 실학정신의 그림자를 깨끗이 없애지는 못했다. 유길준은 격물궁리의 취지를 “이용후생”과 “정덕”에서 찾았다. 인민의 마음을 교도하여 인륜을 세우고 언행을 삼감으로써 인세의 교제를 규율하는 “도덕교육”, 인세의 지식과 인민의 지혜를 관장하는 “재예교육”, 인세의 生道を 이루는 “공업교육”을 각각 ‘정덕’, ‘이용’, ‘후생’에 상응시켰다.⁴²⁾ 근대적 실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유학적 실학정신의 틀로 파악했던 것이다.

2. ‘실심’과 ‘실리’

서세동점과 개항의 질서변동기에는 명분(허상)과 현상(실상)의 어긋남이 발생한다. 서세동점의 문맥에서는 유학의 철학적/우주론적 세계관보다는 정치사회의 질서를 방어하려는 의식이 세졌다. 개항의 문맥에서는 유학 언어로 새로운 근대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근대적 현상이 점증하는 실제(현실)를 반영하지 못할 때, 표상(언어)은 허구(허상)가 된다. 실제와 개념이 분리되면서 언어의 뉘

39) 『서유견문』, 「서유견문 서」.

40) 『서유견문』 제13편 제1절 서양학술의 내력, 607면.

41) 『서유견문』 제9편 제1절 교육하는 내력, 466면.

42) 『서유견문』, 265면.

양스가 바뀌게 된다. 여기서 허와 실의 간극을 해소하려는 실학정신이 작동한다. ‘實心’, ‘實理’는 ‘실용’과는 다른 차원에서 변화하는 사물과 세계의 이치를 파악하고 사물과 세계를 파악하려는 인간의 의식을 말한다.

원래 ‘實心’은 유학정치관의 요체였다. 박규수와 김윤식의 실학정신에는 유학의 천인상관론, 천전론이 작용했다. 박규수는 天을 매개로 ‘실심’을 환기시켰다. 天譴을 말하면서 군주의 修己와 經世를 촉구하였다. 天心을 받아 하늘과 덕성이 부합한 군주는 天을 대신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虛文이 아니라 진실로써 天을 응대해야 하고 ‘실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군주는 생각이 선하면 景星과 慶雲을 부르고 그러면 재해를 부른다고 했다. ‘실심’으로 정령과 조치를 취하고 ‘實事’로 행해야 백성이 태평하다고 했다. 자신이 變理의 교화에 도움이 안 되어 災異가 출현했으니 천전에 답하여 자신을 三事 직에서 내칠 것을 상신하기도 했다. ‘실심’은 天을 매개로 하지만 ‘실정’의 체험과 결부된 것이었다.⁴³⁾ 박규수는 고을수령의 체험을 통해 ‘待罪某職’이 의례적 겸사가 아니라 “실심과 실정”에서 나온 말임을 깨닫기도 했다.⁴⁴⁾ ‘실심’과 ‘실정’은 주재적 天을 매개로 주체적 체험에서 감지된 것이었다. ‘실심’의 리얼리즘을 엿볼 수 있다.

김윤식도 ‘실심’을 중시하였다. 재이론과 천당지옥론에서 확인된다. 김윤식은 재이 현상의 과학적 설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과학적 합리성(실증, 실용)과 무관하게 災異가 인간이 그것을 의식함으로써 마음과 행동을 규율한다고 생각했다. 天이 ‘실심’을 촉구한다고 믿었다. 또한 천당과 지옥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산물이라 생각하였다. “善念이 생기면 천당, 惡念이 일어나면 지옥”이라면서 인간의 마음에 그러한 理가 있다고 했다.⁴⁵⁾ 김윤식의 경우 천전의식은 약해져 있고, ‘실리’를 규정하는 ‘실심’은 ‘심리’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를 부정했던 김윤식은 훗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천당지옥설에서 그 개연성을 엿볼 수 있다.

국제관계론에서는 권력 관계가 ‘實理’를 규정하였다. 박규수는 서세동점으로 중화세계가 약해지면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허상과 실상의 겹을 읽어냈다. 예론에서는 옛법을 중시했던 박규수는 정치세계에서는 명분과 분리되는 현재의 실상

43) 『獻齋集』 卷6, 疏筭, 賓對上殿啓, 27~29張(『환재집』 2, 344~346면).

44) 『獻齋集』 卷9, 書牘, 與尹士淵(1849), 2張(『환재집』 3, 273면).

45) 『雲養集』 卷8, 說, 天堂地獄說, 9~10張(『운양집』 4, 276면).

에 주목하였다. 중국이 조선을 가상히 여겨 붙여준 것이라면서 ‘예의의 나라’라는 호칭에 내포된 조선 유학자의 허심을 추궁했을 때, 박규수는 서세동점의 상황이 유발하는 명분과 실제의 갭을 인지하고 있었다. 왕정복고의 일본 국내사정과 일본 외무성의 조선외교 담당으로 한일 외교 양식이 전환되는 ‘破格’의 현실을 읽어내면서 서계 수리와 대일 수교를 주장했을 때, 박규수는 한일관계의 ‘명분’(허상)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한일 관계의 변화된 ‘실제’(실상)를 응시하였다.⁴⁶⁾ 일찍이 박규수는 천주교 유입의 대응책으로서 명분론적인 배척이 아니라 지방 유생에게 한역 서학서를 읽혀 천주교 교리의 허망함을 논파하게끔 유도하는 벽사의 현실적 방법을 제시하는 리얼리즘을 보인 바 있었다.⁴⁷⁾ 개항기 김윤식의 친청 사대에서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정치세계에서 ‘실리’가 ‘실심’보다는 권력 관계의 실체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길준은 천이나 心에 근거한 ‘실심’보다는 지식과 결부된 ‘實理’를 내세웠다. 근대적 세계지리관과 지원설을 받아들였지만, “명달한 식견”이라면서 지방설이나 혼천설의 당대적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았다.⁴⁸⁾ ‘실리’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에 통용되는 지식과 관련된 이치의 문제였다. ‘실리’는 ‘實狀’에 대한 지식이었다. 유길준은 개항과 실지(서양)견문을 통해 근대 수용에 따른 언어와 현실의 괴리, 허상과 실상의 불일치, 개념과 현상의 불일치를 자각하였다. 허와 실의 괴리는 ‘虛名’과 ‘實狀’/‘實理’, ‘虛影’과 ‘眞景’의 대비로 표현되었다. ‘허명’과 ‘실상’, ‘허명’과 ‘실리’를 구별짓는 것은 지식이었다. 유길준은 겉보기 명분인 ‘허명’을 비판하였다. 사물을 이해하고 앞뒤를 헤아리는 지식이 결여되어 실용이 분수에 못미치는, “개화의 허풍에 빠져 심중에 주견이 없는” ‘허명개화’를 부정하였다. 사물의 이치와 근본을 헤아려 나라의 처지와 시세에 합당한 ‘실상개화’를 옹호하였다.⁴⁹⁾

하지만 ‘허명’의 존재 의미까지 부정한 건 아니다. 유길준은 서양문명을 서술하면서 ‘虛影’(그림자)과 ‘眞景’(실체)의 관계를 의식하였다. ‘허명’(명분)과 ‘실상’(실제)의 관계와는 달랐다. ‘허명’은 ‘진경’에 대한 한정된 체험과 불완전한 정보에서 비롯

46) 『璣齋集』 卷11, 書牘, 答上大院君, 1~10張(『환재집』 4, 193~224면).

47) 『關衛新編評語』, 『璣齋叢書』 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6, 349~358면.

48) 『서유견문』 제1편 제1절 지구세계의 개론, 144~145면.

49) 『서유견문』 제14편 제2절 개화의 등급.

된다. 서양의 ‘景象’/‘眞景’은 기존 언어로 묘사할 수 없어 ‘虛影’일 수밖에 없지만, ‘허영’은 “진경의 그림자”이므로 완전한 허구가 아니며 ‘진경’을 유추하는 근거였다. 유길준은 이를 산수화에 비유했다. 산의 묘사는 “7할의 진경”도 안 되는 ‘허영’이지만, 실재의 반영인 허영을 통해 산의 진경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⁵⁰⁾ 《서유견문》은 서양의 진경을 짐작하게 해주는 허영의 기록이었다.

IV. 예의와 시세

1. ‘예의’와 ‘권력’

서세동점/개항의 문맥에서 실학정신은 새로운 권력의 작용에 민감한 리얼리즘과 더불어 기존 유교질서를 보전하려는 규범의식을 드러냈다. 서세동점과 개항으로 서양 세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명분론이 소환되고 국가의식이 촉발되면서 ‘예의’와 ‘권력’의 관념이 갈등했고 문명관과 국가관이 분화하였다. ‘유도의 나라’와 ‘무도의 나라’, ‘예의의 나라’와 ‘이적의 나라’의 대립향이 불거지면서 국가의식이 강해졌다. 박규수와 김윤식은 중화 정체성이 강했다. 중화 정체성은 멸망한 명조와 현실의 청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드러났다.

박규수는 존명의식이 강한 중화론자였다. “평생 제왕의 고을을 꿈에서 생각하고 대청마루에서 서성거리며 부러워만 했네”,⁵¹⁾ “반평생 책 속에서 제왕의 고을을 상상했네”⁵²⁾라는 시구에서 주변 사대부의 중화 지향을 엿볼 수 있다. 연행 때 쇠락한 효정태후 상을 보고 “左海의 後人으로서 상전벽해의 옛 궁궐터에서 남겨진 遺像을 보고서 방황하고 배회하며 차마 떠날 수 없”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⁵³⁾ 그는 조선이 숭정 말년 때 절개를 지키다 죽은 배신과 의리를 지킨 유민이 많았던 “제후의 나라”임에 자부심을 가졌다. 조선을 후대한 중국의 은혜와 사해 백성의 복택을

50) 『서유견문』 「서유견문 서」, 109~111면.

51) 『瓏齋集』 卷3, 詩, 辛酉孟春之六日集鶴樵書室…, 13張(『환재집』 1, 338면).

52) 『瓏齋集』 卷3, 詩, 辛酉暮春二十有八日與沈仲復秉成董研秋文煥…, 14張(『환재집』 1, 344면).

53) 『瓏齋集』 卷4, 雜著, 孝定皇太后畫像重繕恭記, 20張(『환재집』 2, 76면).

내려준 명나라 황업을 잊지 않았다. 연행 때 지우를 얻은 漢人 사대부를 평생 연모하면서 교류를 소망하기도 했다.⁵⁴⁾ 존명의식에는 황제의 은혜, 제후국 조선의 의리, 조선 선왕의 교화에 축적된 명 황제의 황업에 대한 상찬이 따라다녔다.

김윤식의 사대의식은 존명의식에 한정되지 않는, ‘대국’ 중국을 지향하는 심정이었다. 박규수는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뒤처리와 관련된 자문에서 청국 황제의 眷恤을 칭송하면서 소국의 예를 다했지만, 외교적 수사였을 뿐 청조에 대한 사대이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소국’ 조선의 예는 대국과의 권력 관계에서 나왔다. 박규수와 달리, 김윤식은 현존 대국인 청조를 향한 현실적 사대를 중시하였다. ‘사대의 예’는 현실의 대국에 대한 사대와 리얼리즘에 기반하였다. 김윤식이 개항기에 청국에, 주권상실기에 일본에 의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러한 의식에서였다.

‘有道無道’는 국가를 판별하는 도덕적 기준이었다. 박규수는 서양 군사력에 노출된 위기 상황에서도 중화문명의 우월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중화문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가졌다. 북경함락에도 “힘을 다해 밝은 덕을 숭상하고 도를 지켜 해충을 제거한다면” 서양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⁵⁵⁾ 싱가포르에 서원이 설립되고 유학 경서가 독일에서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학이 서양세계에 넘쳐흐를 것이라 확신하였다.⁵⁶⁾ 김윤식도 氣數의 이변이 발생해도 ‘유도의 나라’는 재앙을 입지 않고 ‘무도의 나라’만이 화를 입는다고 생각하였다.⁵⁷⁾ 김윤식도 ‘예의의 나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다. 蘇軾이 고려가 남송에 행한 ‘사대의 예’가 ‘義’가 아니라 ‘回賜’의 이익을 구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고려는 ‘군자의 나라’이고 東人의 천성은 慕華에 있으며, 거란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역경에 처한 남송에 誠을 다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⁵⁸⁾

‘예의’는 인간관계와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중화세계의 규범이었다. 조선 유학자에게 ‘예의의 나라’는 사대 대상인 중화에 대한 자기존재 증명과 문명의 보유자/계승자의 자부심이 담긴 말이었다. ‘금수’ 서양에 대한 중화문명의 우월감의 표현이었

54) 『獻齋集』 卷4, 序, 西歸集序, 42~43張(『환재집』 2, 155~156면).

55) 『獻齋集』 卷3, 詩, 辛酉暮春二十有八日與沈仲復秉成董研秋文煥…, 16張(『환재집』 1, 352면).

56) 辛酉孟春之六日集鶴樵書室…, 13~14張(『환재집』 1, 340~341면).

57) 雲養集』 卷8, 說, 災異說(1892), 12張(『운양집』 4, 286면).

58) 『雲養集』 卷15, 雜著, 八家涉筆下(1870), 8~9張(『운양집』 7, 55~56면).

다. ‘예의의 나라’는 중화적 가치를 공유했을 때, 서양의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주권평등 개념을 갖게 되었을 때, 각각 함의가 달랐다. 서세동점과 개항의 문맥이 전개되면서 ‘예의의 나라’ 관념은 상대화되는 한편, ‘예의’를 국제규범으로 보는 인식이 커졌다. 김윤식은 ‘예의의 나라’를 말하는 유학자의 허위의식을 지적한 바 있다. “겉으로는 겸양의 미를 꾸미고 안으로는 利害의 마음을 품고 있다. 듣는 자는 이삼히 여기지 않고 말하는 자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因循姑息하고 서로 沿襲하여 예의의 나라라 한다”⁵⁹⁾면서 ‘예의의 나라’가 “因循姑息”의 언어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하였다. 박규수의 ‘예의의 나라’ 비판에서는 중화질서를 상대화하고 ‘예의’를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규수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겪으면서 “저들이 호의로 나오면 우리도 호의로 대하고 저들이 예의로 나오면 우리도 예의로 대하는 것이 인정상 당연한 것이며 국가간의 일반 관례”라면서 ‘예의’가 보편적 외교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⁶⁰⁾

‘예의’의 보편적 국제규범화는 리얼리즘의 성장과 관련된다. 박규수가 서계 문제와 한일수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김윤식이 조미수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분쟁의 발생을 우려한 것은 리얼리즘 감각이 작동해서였다. 서세동점과 개항의 위협에서 개체의 자주를 모색하는 리얼리즘이 성장하면서 ‘권력’에 대응하는 ‘예의’는 보편적 국제윤리로 상정되었다. 유학적 ‘예의’의 이념적 규제력이 약해진 것이다. ‘예의의 나라’ 개념의 상대화와 ‘예의’의 보편적 규범화는 규범(예) 세계와 현실(권력) 세계의 분화를 의미한다. 예의와 권력의 분화를 인지하는 지점에 실학정신이 작동하였다.

유길준은 ‘예의’의 국제규범을 만국공법에서 찾았다. 만국공법을 ‘예의’의 근대적 양식으로 보았고, 주권 개념을 받아들여 한중간 예법인 조공사대를 상대화하였다. 한때 일본 유학을 계기로 국권과 권력정치를 옹호하는 현실주의 감각을 체득했지만,⁶¹⁾ 중화체제와 국제법체제가 교착하는 이중질서 속에서 규범(예의)으로 권력을 제어하려는 감각을 회복하였다. 유길준은 만국이 이웃처럼 우애의 뜻과 평등한 예의로써 조약을 맺고 사절을 교환하는 ‘방국의 교제’를 상상하면서 국제사회의 ‘公道’

59) 『雲養集』 卷14, 雜著, 保任(1857), 6張(『운양집』 6, 421면).

60) 美國兵船滋擾咨, 22張(『환재집』 3, 86면).

61) 『世界大勢論』, 『俞吉濬全書』 3, 일조각, 1971.

와 보편적 ‘正理’를 표방한 만국평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계약적 발상을 동원하여 조공체제를 주권국가체제의 법적 논리 속에 포섭하였다. 증공-수공은 한중간의 특수한 계약으로, 제3국(미국)과의 주권평등의 조약 관계를 훼손하지 못한다는 견해였다.⁶²⁾ 유길준의 경우 주권평등과 계약의 논리는 대국에 대항하는 소국의 명분이자 투쟁 수단이었다. 규범론은 리얼리즘의 표현이었다.

2. ‘시세’와 ‘처지’

‘예의’는 유학의 의례에 기반을 두었다. 박규수, 김윤식의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이었다. 박규수는 주자의 人心道心, 天理人慾의 설을 받아들여 形氣에서 나온 것이 인욕의 사사로움만은 아니지만, 耳目口體의 봉양과 희로애락의 감정이 올바름을 얻지 못하면 인욕의 사사로움을 따르게 되어 도심이 사라진다고, 형기의 사사로움을 따르면 인욕을 추구하고 천리를 끊게 된다고 했다.⁶³⁾ 박규수는 송대 성리학자의 천문학설을 지원설의 한 원류로 간주했으며, 渾象을 제작했을 때 주자의 생각을 계승하고자 했다. 고증학도 성리학을 기반으로 수용하였다.⁶⁴⁾ ‘訓詁’와 ‘義理’의 결합을 시도한 셈이다. 김윤식도 송학의 합리적 자연관을 받아들였고 주자의 도통론을 따랐다. “만물이 근원을 같이하는 것을 논하면 理는 같고 氣는 다르다. 만물이 體를 달리하는 것을 보면 기는 서로 가깝지만 리는 결코 같지 않다”면서 주자의 이기론을 받아들였다.⁶⁵⁾ 불교, 도교에는 비판적이었다. 불교는 夷狄의 비천한 말이었는데 유교의 微言을 흠쳐 부회하여 ‘리’를 갖게 되고 유교의 ‘도’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叛儒’ 노자 탓으로 돌렸다.⁶⁶⁾

박규수와 김윤식은 성리학을 체득했지만 철학적 논의를 즐겨하지는 않았다. 경학 자라기보다는 시무가였다. 이들은 예의와 권력의 균형을 취하는 ‘時務’ 감각을 가졌

62) 『서유견문』, 제3편 방국의 권리.

63) 『礪齋集』 卷7, 跋, 人心道心圖跋, 3張(『환재집』 3, 22~23면).

64) 김명호, 앞의 2011 논문, 133~134면.

65) 『雲養集』 卷14, 雜著, 庸言, 9張(『운양집』 6, 430면).

66) 『雲養集』 卷14, 雜著, 八家涉筆上, 18張(『운양집』 6, 460면). ‘性即理’는 불교의 ‘理’ 관에서 영향 받은 것인데, 김윤식은 불교가 차용했다고 부회하였다. 주자학자의 배불론과 다르지 않다.

다. ‘시무’는 ‘시세와 처지’에 부합하는 ‘時宜’를 말한다. ‘시무’는 시간적 연속성(예의)과 공간적 변화(권력)의 적절한 공존에서 의식된 것으로, 질서변동기의 실학정신에 요구되는 리얼리즘의 표현이었다. 도덕이나 이념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질서 변경을 초래하는 시세를 부정하는 원리주의자와 달리, 이들은 권력이 작동하는 국제관계의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들의 리얼리즘은 권력의 변동에 주목했지만 무분별한 상황 추종으로 흐르지 않았다. 질서 유지와 정체성 보전에 필요한 ‘예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규수는 서생의 고루한 습관을 벗어나 ‘처지’를 생각하는 리얼리즘에서 ‘시무’를 생각했다. 박규수는 몇 권의 경전과 역사서에 의탁해 세상을 보는 고질적 습관을 가진, ‘시의’에 둔감한 유학자의 타성을 추궁하였다.⁶⁷⁾ 역사서와 전기물을 읽고 치란성쇠와 존망안위의 事績을 생각할 때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을 그 “처지”에 두고서 “**목전에 닥친 상황**”과 비교하였다.⁶⁸⁾ 박규수의 예학은 《예기》에 포획된 것이 아니었다. ‘예’의 쓰임은 “시의”가 중요했다. ‘예의의 나라’ 비판은 ‘예의’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말의 ‘시의’가 바뀌었음을, 즉 **시효**가 다했음을 간파해서였다. 박규수는 지금 정해진 제도가 없다면 주나라 예법을 따라야 허물이 적다고 생각했지만,⁶⁹⁾ 옛법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人臣無外交’에 관해서도, 고대중국에서 ‘외교’는 제후간 교유가 아니었으며, 설사 그렇다한들 “천하가 일가이고 사해가 회동하는 지금 세상”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⁷⁰⁾ 중화세계를 넘어 서양국가와 ‘외교’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의’, ‘시세’를 인지했던 것이다.

김윤식도 “때[時]를 당하여 마땅히 해야 하는 일[務]”, 즉 시세와 장소에 맞는 일처리를 강조했다. 그의 경우 자국의 힘이나 국세를 헤아리지 않고, 氣稟과 病症을 따지지 않고, 타인의 악을 복용하는 것은 시무를 모르는 짓이었다.⁷¹⁾ 중국이나 유럽의 방식만을 모방한다면 ‘陵替之憂’나 ‘土崩之患’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조선의 ‘시무’는 “염치를 받들고 탐함을 물리치며, 백성을 謹恤하고 조약을 謹守하여 우방과 분쟁

67) 『瓚齋集』 卷10, 書牘, 與沈仲復秉成(又)(1862), 8張(『환재집』 4, 39면).

68) 『瓚齋集』 卷10, 書牘, 與沈仲復秉成(1861), 3張(『환재집』 4, 21~22면).

69) 『瓚齋集』 卷5, 祭文, 祭外舅李公文(1849), 3張(『환재집』 2, 167~168면).

70) 與沈仲復秉成(1861), 3張(『환재집』 4, 23면).

71) 『宜田紀述評語三十四則』(1891), 156면.

을 일으키지 않는” 데 있다.⁷²⁾ 김윤식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무를 벗어난 급진 개화파의 ‘개화’를 비난하였다. “甲申의 적들은 서양을 흠모하고 요순을 경시하고 공자를 폄하하는데 열심이였다. 彝倫의 도를 야만이라면서 그 도를 바꾸고자 걸핏하면 개화를 칭하였다. 이는 천리가 절멸하고 갓과 신발이 뒤바뀐 것이다…이러한 開發變化는 文飾의 말이다. 이른바 개화란 시무를 말한다”⁷³⁾라고 했다. 개화를 ‘시무’로 파악하였다.

유길준은 문명 수용의 문맥에서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출중한 지혜와 비범한 용단이 있어도 초탈할 수 없고 다만 順行해야 하는”⁷⁴⁾ ‘시세와 처지’를 의식했다. ‘시세와 처지’는 개화의 주체성을 조건지우는 요소였다. 그는 ‘시세와 처지’에 맞지 않는 허상개화를 비판하였다. 개화를 혐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개화의 노예”나 비주체적인 “개화의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시세와 처지’에 맞는, “개화의 주인”이 되는 “실상개화”를 주장하였다. 유길준이 생각한 시무는 군주제 유지와 민본정치 실현, 실상개화를 통한 국가 보전이였다. 입헌군주제를 이상적 정체로 보았지만, 세습군주제가 조선의 ‘시세와 처지’에 맞다고 생각했다. 세습군주제는 “선미한 것”으로 보수해야 할 “成法”이였다. 군주는 일국의 체모와 인민의 안녕을 보전하는 최상위를 차지하고 최대권을 가진 자였다.⁷⁵⁾ 유길준은 군주가 “공평한 도리로써 덕택을 골고루 베푸는” 위민정치인 ‘美政’을 추구하였다. ‘미정’은 유교적 민본정치인 ‘仁政’이 개항기의 문맥에서 변용한 것이였다. 유길준은 조선시대의 ‘인정’을 ‘惠政’이라 불렀고 ‘小惠’, ‘小仁’이라 비판하였다.⁷⁶⁾ 유길준의 정치체제 구상은 1880년대 개방개혁의 ‘시세와 처지’가 반영된 실학정신의 표현이였다.

72) 『雲養集』 卷8, 說, 時務說(1892), 10張(『운양집』 4, 278~279면).

73) 『宜田紀述評語三十四則』, 156면.

74) 『서유견문』 제14편 「개화의 등급」, 676면.

75) 『서유견문』 제3편 「방국의 권리」, 205면; 『서유견문』, 66~72면.

76) 『서유견문』 제7편 「수세하는 법규」, 415~421면.

V. 변통과 보수

1. ‘변통’

시무의식은 시세에 부응하는 변혁 즉 ‘변통’의 사유를 동반한다. 박규수가 ‘문장의 도’로 말한 “아속과 진위”를 바로잡는 “法古能變”⁷⁷⁾은 박지원의 ‘法古創新’과 통한다. 박규수는 복식에 대해서도 변통하되 옛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규수는 서양그림을 보고 만 리나 떨어진 서양 여인의 복식이 조선 여인의 것과 흡사한 데 놀란 적이 있다. 서양에는 유럽을 정복했던 몽고의 복식이 존속하고 조선에는 원나라 공주 때 들어온 복식의 유풍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추정하면서 몽고풍 복식을 “改變”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변(변통)의 준거를 ‘옛법’에 두었다.⁷⁸⁾

김윤식도 요순삼대의 ‘옛법’은 변통의 원점으로 삼았다. 古의 전범에 비추어 今을 변통해야 한다, 옛법은 今의 변통을 통해 복귀되어야 한다고 믿었다.⁷⁹⁾ 하지만 ‘사천년 초유의 變局’에서 옛법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 김윤식은 유학 정체성을 잃어서도 안 되지만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복제, 복례에 관해서는 “의상의 제도는 고금이 형편(宜)을 달리한다. 옛 현인도 금인은 금인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⁸⁰⁾라면서 옛사람이 예를 제작한 본래 의도를 잃지 않고 ‘文質’을 가감하는 선에서 예의 변경을 용인하였다.⁸¹⁾ 그는 본질을 해치지 않는 改變인 ‘時中’을 주장하였다. ‘시무’는 군자가 시세에 부응하여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⁸²⁾ 현재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77) 呈徐楓石致政尙書, 10張(『환재집』1, 318면).

78) 『漱齋集』卷9, 書牘, 與洪一能, 22張(『환재집』3, 360~361면).

79) 김윤식은 만년까지 요순삼대를 전범으로 삼는 유학적 사고를 버리지 않았다. 다음 발언을 보라. “당우삼대의 의리는 秦과 漢에 이르러 크게 변했고, 진과 한 이래의 의리는 금일에 이르러 크게 변했다. 천도는 순환하고 왕복하지 않음이 없다. 어찌 今에 의하지 않고서 진정 당우삼대의 古로 돌아가는 것을 알겠는가”(『雲養集』卷12, 書牘下, 答李海鶴沂主事書(1904), 11張; 『운양집』6, 68면).

80) 『雲養集』卷8, 說, 弓鞋說(1881), 3張(『운양집』4, 251면).

81) 『宜田紀述評語三十四則』, 154면.

82) 『중용』에서는 “군자의 중용은 군자로서 시중하는 것”[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이라 했다. 김윤식은 이 ‘시중’을 “의리가 때를 따르고 사람을 따른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군자는 窮하면

김윤식의 시무론은 옛것에서 복제의 원형을 찾았던 박규수의 예학론과 달랐다. 예를 제작한 옛사람의 의도를 살리면서 시세에 맞게 현재의 의리를 실천하는 변통이 ‘시중’이었다. 이러한 변통론을 지탱한 논리는 도기론이었다. 김윤식은 “도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器의 변화를 인정하였다.⁸³⁾

유길준도 문명사회로의 ‘改進’을 구상했지만, ‘變通’, ‘變易’, ‘變幻’, ‘應變’, ‘變改’ 등 다양한 용어를 쓰면서 ‘시세와 처지’에 맞는 점진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변통’은 “천지의 자연한 이치”가 때에 맞게 변에 응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사철에 여름에 갈옷을 입고 겨울에 갓옷을 입는 것과 같은 변화였다. 유길준은 ‘개화’를 ‘변통’으로 이해하였다.⁸⁴⁾ ‘행실의 개화’는 영구 불변이지만, 정치, 법률, 기계, 물품의 개화는 시대에 따라 ‘변개’하고 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개화’는 시간적으로 옛날의 자기에 비추어 현재의 자기를 살피는(審) “斟酌”과, 공간적으로 자기와 타자의 같고 다를음을 헤아리는(量) “比較”에 의거한 사단취장의 실천이었다. “고금의 형세를 짐작하고 피차의 사정을 비교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었다. 고금의 형세(시세)를 짐작하고 피차의 사정(처지)을 비교하는 것은 고와 금이 맞지(合) 않고 피와 차가 맞지(適) 않는 콘텍스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짐작과 비교를 통한 사단취장은 시세와 처지를 고려하는, 경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변통이었다. 유길준도 옛법보다 현재를 중시하였다. 옛법을 따른다고 변통의 도를 모르고 국가를 위급함에 서 구하지 못하면 “선왕의 죄인”이라 했다.⁸⁵⁾

유길준은 “過不及”과 “得中”의 논리를 제시한다. 유길준은 “사물의 이치와 근본을 궁구하고 考諒하여 나라의 처지와 시세에 합당하게 하는” ‘개화’는 ‘득중’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었다. ‘혁명개화’를 일삼는 ‘개화의 죄인’, ‘개화의 병신’의 過와, 개화를 부정하는 ‘개화의 원수’의 不及 사이에서 중용 즉 ‘득중’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득중’은 시세와 처지에 부응하여 남의 장점을 취해 자기의 선미한 것을 지키는 데 지나친 것을 규제하고 미치지 못한 것을 권면하는 것이었다. “보수란 완고한 고집이

자신의 몸을 獨善하고 達하면 천하를 兼善한다”[『孟子』 盡心上]는 맹자의 말을 언급하면서 “窮에는 窮의 中이 있고 達에는 達의 中이 있다. 독선은 군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쓰는 것이다. 선비는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천하의 일은 나의 분내의 일이 아님이 없다”고 했다.

83) 김윤식의 도기론에 관해서는 장인성, 앞의 2002 책, 353~356면 참조.

84) 『서유견문』 제5편 제1절 정부의 시초, 349면.

85) 『서유견문』, 87~88면.

아니고 개진이란 경솔한 妄擧가 아니다”. 변통은 ‘보수’와 ‘개진’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는 것이었다. 변통론은 시세와 처지에 부응한 주체적 개화의 논리였다.⁸⁶⁾

2. ‘보수’

변통은 새로운 것(근대)에 대응하는 변화이지만 궁극적으로 오래된 것(전통)의 보수를 의도한 것이었다.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의 실학정신은 외세의 위협에 대응할 국가의 양태를 모색하는 데 개성을 드러냈다. 외세의 위협에 대응하여 보수할 것은 ‘국가’와 ‘도’였다. 박규수는 ‘국가’를 보전해야만 ‘도’가 보전된다고 믿었다. ‘국가’가 온존했던 개항 이전의 상황에서였다. 국망의 상황을 맞이한 말년의 김윤식은 ‘도’만 보전한다면 ‘국가’는 소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유길준은 “자기의 선미한 것”과 “成法”(선왕의 제도)을 보수하기 위해 ‘변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가 존립해야 백성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 세 사람에게는 군주제 보수가 최고의 정치적 가치였지만 차이가 있었다. 국가와 질서의 보전을 위해 박규수와 김윤식은 군주의 윤리를, 유길준은 군주제의 변용을 요구하였다.

박규수는 祖宗의 왕통이 이어지는 ‘종묘와 사직’을 뜻하는 ‘國家’의 보전을 중시하였다. “祖宗의 王統”, “조종의 지위”, “조종의 예법”은 국가 보전의 요체였다. 그는 조종과 선왕의 법도와 민본정치를 절대 규범으로 삼을 것을 민본정치의 주체인 군주에게 요구했다. “上帝를 마주 대한 듯” “선왕의 법도”를 본받아 백성을 위해 “조종이 행한 조치”와 “조종이 가졌던 근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군주에게 “敬天”과 “勤民”과 “節儉”의 윤리를 요구했다. “敬天勤民은 왕가에 전수되어온 심법”이며, “경천의 실상은 근민에 달려 있고, 근민의 요체는 절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군주의 “名節”과 “廉恥”도 강조했다. 이러한 군주관을 지탱한 건 민본사상이었다. 박규수는 백성을 교화하는 주체인 군주에게 적자인 백성의 부모된 마음으로 백성을 구제할 방도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백성을 잘살게 하는 길을 “전하의 일심”과 “군주의 덕성”에서 찾았다.⁸⁷⁾ 박규수는 군주의 수양에서 정치의 정도를 찾는 전통적 군주관

86) 유길준은 ‘중용’을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덕목으로 보았다. 중용으로 사회적 자유를 규율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의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는 ‘득중’은 주체의 분함과 법률의 공도를 매개로 표출되는 통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을 보였다.

김윤식은 군주를 개혁의 주체로 상정하면서 점진적 “改正”을 주장하였다. 갑신정변의 급진적 ‘개화’를 부정하였다. 한나라 문제 때 급진적 개혁을 시도한 賈生을 비판하기도 했다. ‘개정’은 훌륭한 군주만이 할 수 있는데 漢文帝는 평범한 군주였다면서, 군주에게 인륜의 도리를 진언하고 수양하고 실천하는 공부를 권해야 했으며,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에 도달함으로써 “천천히 젖어 들게 하여” 군주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야 했고, 군주의 생각을 살피고 때를 헤아려 뜻을 실천했어야 했다고 가생을 비판하였다.⁸⁸⁾ 김윤식은 군주제 ‘국가’를 옹호하고 유교질서를 보수하고자 했다. 동도서기론에 기초한 洋務는 군주제 국가를 보전하기 위한 점진적 변통의 방법이었다. 김윤식은 군주제 정치체제를 보전하기 위한 시무로서 1880년대에는 養兵을, 1890년대에는 富民을 우선책으로 삼았다.⁸⁹⁾

유길준은 군주제, 사회질서, 윤리도덕의 보수를 주장하였다. ‘국가’의 보수를 의도한 변통을 구상하였다. 변통은 국가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길준은 최고의 가치인 종묘사직의 보전을 위해 옛법과 선왕의 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옛법을 변경해서라도 선왕의 廟社를 “保安”해야 선왕의 제도를 “固守”할 수 있고, 국가를 “保守”할 수 있다면 선왕의 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시세와 처지’에서 세습군주제를 옹호했고 공화정이나 대통령제를 부정하였다. 유학적 윤리(오륜)에 기초한 질서의 보전을 구상하였다.

‘국가’ 보수의 의식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외위기 상황을 자각하는 정치 의식과 더불어 표출되었다. 주권국가체제에서의 외교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점차 ‘國家’는 종묘사직에서 근대적 주권체를 의미하는 말로 바뀌었고 전통적 외교 방식

87) 『獻齋集』 卷6, 疏箚, 賓對上殿啓, 24~29張(『환재집』 2, 333~348면). 박규수는 특히 국운을 일으킨 “태조의 성덕과 신묘한 공”을 칭송했고, “영조의 왕도와 교화에 의한 융성한 정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태조와 영조가 ‘절검의 덕’을 보였고 백성 보호를 일념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88) 『雲養集』 卷7, 論, 改正朔易服色論, 20~21張(『운양집』 4, 121~124면).

89) 김윤식은 훗날 국망의 상황에서도 신학을 받아들여 동도의 범주를 확충함으로써 ‘도’와 ‘예의’의 보전을 꾀했다. 여전히 ‘도’만 보전한다면 ‘국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윤식은 도덕과 인의는 理로서 그것을 담는 器인 六藝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또한 ‘예의’를 “나라를 지키고 정치를 행하여 백성을 잃지 않는” 禮와, 揖讓과 周旋의 儀를 합친 것으로 재정의하였다. 정치학, 법학, 공법학, 경제학의 신학을 예에 포함시켰다(『雲養集』 卷8, 新學六藝說(1907), 12~14張; 『운양집』 4, 288~295면).

은 힘을 잃어갔다. 박규수가 청국 예부의 담당하에 미국과의 간접 교섭에 임한 것이나 서계 문제를 둘러싼 대일 관계를 교린 차원에서 이해한 것, 김윤식이 청국(李鴻章)의 ‘擔任’ 하에 조미수호조약을 추진한 것에서 사대교린체제의 유산을 엿볼 수 있지만, 개항조약의 체결과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주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윤식은 거문도점령 외교에서 국제법에 입각해 조선의 주권을 주장하였다. 유길준은 조공체제와 국제법체제가 교착하는 이중질서에서 종묘사직을 뜻했던 ‘國家’ 개념과 더불어 대외적 주권체로서의 ‘邦國’ 개념을 드러내면서 주권 개념을 확립하였다.⁹⁰⁾ 유길준의 경우 대외적 주권체로서의 ‘방국’의 보전은 종묘사직으로서의 ‘국가’의 보수를 상정한 것이다. 주권체의 자주독립은 ‘國家’의 보수, 즉 세습군주제의 보전과 상관된 것이었다.

VI. 맺음말: 실학정신의 리얼리즘과 보수주의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은 문명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유학적 실학정신을 드러낸 실무가(경세가)였다. 박규수는 서세동점의 문맥에서 유학 패러다임의 실학정신을 보였다. 김윤식은 서세동점과 개항의 문맥에서 유학 패러다임을 견지하면서 개혁의 실학정신을 나타냈다. 유길준은 개항의 문맥에서 근대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문명개화’를 유교질서관에 포섭하는 실학정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서양국가와의 근대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콘텍스트에서 초래된 정치변동과 질서변동에 대응하면서 국가와 공동체의 질서를 보수하고자 했다. 각자의 개혁 구상은 서세동점/개항의 상황의 차이, 서양문명의 수용 정도에 따라 달랐다. 전통과 근대의 간극, 유학사상과 근대사상의 괴리를 근대주의와 근대성으로 해소하려는 서술 방식으로는 개방개혁기 사상의 리얼리티를 파악하기 어렵다. 개항기 조선에서 유학은 주류 사상이었다. 근대사상은 예외적인 것이었다. 개방개혁의 사상은 유학적 실학정신의 새로운 전개로 봐야 한다.

90) 유길준의 ‘國家’, ‘邦國’ 개념의 의미와 상관적 관계는 장인성 역저, 『서유견문』, 208~214면에 상세하다.

개항기의 실학정신은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의 ‘실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허와 실의 간극을 해소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실학을 이어받았고 선진유학의 실학성 과도 통했다. 하지만 허와 실의 내용은 달랐다. 서세동점기의 박규수는 허와 실의 일치를 실사를 추구하는 예학에서 찾았다. 예는 작위가 아니라 자연에서 생겨난 제도였다. ‘深衣’는 제도이지만 ‘자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규수는 “의상이란 몸에 맞을 뿐이니, 몸에 맞는다면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추게 된다. 이에 法象이 질서정연해졌고, 문장이 찬란하게 되었다. 성인의 도는 자연에 근본하니, 聖神의 공업과 교화는 모두 實事이다. 어찌 구차하게 억지로 힘써서 만든 것이겠는가”라고 했다.⁹¹⁾ 개방개혁기의 유길준은 언어와 제도의 작위적 개혁을 통해 허와 실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했다. ‘허명’ 개혁과 ‘실상’ 개혁의 간극을 작위적으로 없애야 하는 개방개혁의 시세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국한자 일치의 견해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리얼리즘은 실학적 사유의 요체였다. 실제와 명목 사이의, 현상과 언어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의식은 실지(리얼리티)를 파악하는 감각(리얼리즘)에서 배태되었다. ‘시세와 처지’에 주목하고 그 성격을 파악하는 현실감각에서 나왔다. 리얼리즘은 콘텍스트를 읽어내고 그 속에서 변화하는 리얼리티를 파악하는 감각을 말한다. ‘법고창신’, ‘시무’, ‘변통’의 사유는 리얼리즘을 내포한다. ‘실리’는 명목과 언어에 가려 있는 리얼리티에 부응하는 이치를 뜻한다. 실학정신은 실제와 명목의 간극을 메우려는 개혁을 지향하지만, 질서 패러다임을 파괴할 정도는 아니었다. 보수적 현실주의자들은 예적 질서와 옛사람의 뜻을 존중하면서 유교적 덕목이 작용하는 사회 질서의 현재적 변용을 구상하였다.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인식(리얼리즘)에서 보수적 개혁(보수주의)의 욕구가 생겨난다.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은 점진적 보수를 꾀했다. 사세(시세와 처지)를 중시하는 사고법, 점진적 개혁과 과불급의 중용, ‘경려’의 정신에서 점진적 보수주의를 읽을 수 있다. 변통은 보수적 개혁 혹은 개혁적 보수로 볼 수 있다. 점진적 보수주의는 과정과 노력을 중시한다. 발견과 노력의 행위는 보수주의의 핵심이다.⁹²⁾ 박규수는 친구 尹宗儀의 아들 尹憲의 글씨를 논평하면서 秋翁(김정희)은 여러 사람의 장점을

91) 『獻齋集』 卷4, 雜著, 深衣廣義, 3張(『환재집』 2, 21면).

92) 이에 관해서는 장인성, 『현대일본의 보수주의』, 연암서가, 2021, 182~183면, 452~453면 참조.

녹여내 서법을 이룬 대가인데, “**추옹이 학습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찌꺼기만 모방한다면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중세 이전의 서체(송설체)를 학습할 것을 권한 바 있다.⁹³⁾ 김윤식은 진정한 성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요순의 도’를 “**刻意探求**”하는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했다.⁹⁴⁾ 유길준은 “극선진미한 경역”(문명사회)을 향한 부단한 개화에는 “**競勵**”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려’는 ‘경쟁’의 투쟁성을 지양할뿐더러 부단한 노력을 함축한 말이었다.⁹⁵⁾

리얼리즘과 보수주의의 실학정신은 보수적(점진적) 개혁을 지향하였다. 김윤식은 좋은 법이 있어도 하루 아침에 지구상에 통용될 수는 없다면서 급격한 개혁을 비판하였다.⁹⁶⁾ 유길준은 경험을 중시하였다. “**오랜 세월과 무한한 練歷(경험)**”을 거쳐야 허상개화에서 실상개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경험의 축적과 지식 기술의 주체적 습득은 지식(이론)과 실제(처지와 시세)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나라의 처지와 시세’에 맞는 적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대책이었다. 유길준은 “수백년의 考驗”을 거쳐 “점차” 전제군주제를 변경하여 군민공치제를 실현시킨 영국의 사례에 주목했다. 이상적 입헌군주제라는 “**虛理**”(논리)가 아니라 나라의 “**實情**”(경험)에 의거한 ‘개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⁹⁷⁾ 중용은 사회질서는 ‘보수’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改進’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었다. 중용은 단순한 중간이 아니라 주체성의 표현이었다.

유교적 윤리관은 흡스적 투쟁관을 제어했지만, 유학 패러다임에서 영위되는 한, 유교적 낙관주의를 벗겨내지는 못했다. 이들 시무가의 실학정신은 국가의 생존과 자주(독립)를 지향하는 내셔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유교적 윤리관의 낙관주의를 털어내지는 못했다. 박규수는 중화세계의 유학사상이 유럽을 압도하여 서양 오랑캐가 중화의 ‘同文’에 귀일할 것으로 전망했고, 유길준은 유학적 덕목이 구현된 ‘극선진미한 경역’(문명사회)을 꿈꾸었다. 김윤식은 국망의 위기에서도 유학의 도를 보전하면 국가가 소생할 것이라 믿었다. 침략적 제국주의의 상황에서도 중화적 가

93) 『獻齋集』 卷9, 書牘, 與尹士淵(又), 14張(『환재집』 3, 324면).

94) 『雲養集』 卷9, 序, 古今詩鈔序(1866), 21~22張(『운양집』 4, 508면).

95) 『서유견문』 제4편 「인세의 경려」, 312~319면.

96) 時務說, 10張(『운양집』 4, 278~279면).

97) 『서유견문』 제5편 제2절 정부의 종류, 363면.

치의 유효성을 믿었고 ‘도’의 회복을 기대하였다.⁹⁸⁾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의 유학적 실학정신에 나타난 리얼리즘과 보수주의는 서세동점과 개항의 문맥이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시대적 조건’에서 배태되었다. 서세동점과 개항으로 부과된 ‘근대적인 것’이 실학정신의 표출을 매개하였다. 개항기 실학정신은 조선후기 실학과는 ‘시대적 조건’이 달랐다. 서양 국가권력과의 만남에서 배태되었고 ‘근대적인 것’과 결부된 정신작용이었다. 개항기 실학정신의 리얼리즘과 보수주의에 주목했을 때 근대적 변혁사상을 주류로 서술된 박제화된 근대한국사상사는 교정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4.01.14

심사일: 2024.03.06

게재확정일: 2024.03.28

98) 『雲養集』 卷10, 序, 六堂序, 26張(『운양집』 5, 140면). 김윤식은 “나라는 망해도 도가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 된다. 나라가 있어도 도가 없다면 나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을 보였다(「送今關天彭(壽鷹)西遊中華序」, 『雲養續集』 卷2, 41張).

참고문헌

- 『璣齋集』(1911)
『雲養集』(1914)
『西遊見聞』(1895)
「關衛新編評語」, 『璣齋叢書』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6
『續陰晴史』, 국사편찬위원회, 1960
김채식·이성민 역, 『환재집』 전4권,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2017
기태완 외 역, 『운양집』 전8권, 혜안, 2013~2014
장인성 역저, 『서유견문』, 연암서가, 2017
『유길준전서』 3, 일조각, 1971
- 강재언·정창렬 역,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1981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장인성,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_____, 『현대일본의 보수주의』, 연암서가, 2021
조광,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 경인문화사, 2010
- 강지은, 「조선후기 ‘실학’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보』 75, 고려사학회, 2019
김명호, 「실학과 개화사상」, 『한국사 시민강좌』 48, 일조각, 2011
_____, 「실학과 개화사상의 관련양상」, 『대동문화연구』 3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김영호,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관 문제」, 『한국사연구』 8, 한국사연구회, 1972
김윤경, 「조선후기 ‘실(實)’ 담론에 나타난 유교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철학논집』 75, 한국철학사연구회, 2022
김윤희, 「갑신정변 전후 ‘개화’ 개념의 내포와 표상」, 『개념과 소통』 1(2),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8
김종학, 「‘개화’의 수용과 근대 정치변동(1876~1895)」, 『한국문화』 9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김충열, 「1880년대 개화파의 세계관 탐구: 실학과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21
노관범,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사, 2018
_____, 「전환기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이해」, 『기억의 역전』, 소명출판, 2016
심경호, 「실학 개념의 재정립」, 『인간 환경 미래(1)』,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08

- 오가와 하루히사, 「실심실학 개념의 역사성과 보편성」,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2016
- 이현창, 「실학의 개념과 학술사적·현재적 의의」,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2018
- 정성희, 「근대 초기 유학자의 현실인식과 대응 논리-운양 김운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5
- 정호훈,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추이와 성과」, 『한국사연구』 184, 한국사연구회, 2019
- 조성을,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상사 입문』, 서문문화사, 2006
- 한영우, 「실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영우 편,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9

The Political Thought of Park Kyu-soo, Kim Yun-sik and Yoo Gil-jun and the History of Korean Thought

Jang, In-sung

Although research o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thought has become more based on empirical analysis than ideological interpretation,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ng a genealogy of the history of thought centered on radical enlightenment ideas is still strong.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thought is often described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ism, focusing on the radical enlightenment faction. With this method of description, it is difficult to properly understand the thoughts and actions of the moderate enlightenment faction. The idea of radical enlightenment was not a mainstream idea until the Gabo Reform. The method of constructing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thought centered on the radical enlightenment ideas needs to be reconsidered.

This article analyzes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of Silhak by Park Gyu-su, Kim Yun-sik, and Yu Gil-jun revealed in the context of Western impact and the opening of Korea. They displayed the spirit of Silhak sensitively reading the gap between the illusion and the reality, and bridging the gap between modern phenomena and Confucian language in the transition of the Chinese world order to the sovereign state system. While showing realism and reformism in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the changing order, it also revealed the spirit of conservatism in preserving the political system. The realism and conservatism of the Confucian Silhak spirit was a response to the conditions of the times that called for the Western impact and the opening of Korea.

Key Words : Park Kyu-soo, Kim Yun-sik, Yoo Gil-jun, the Confucian spirit of Silhak, enlightenment thought, realism, conservatism